

파키스탄의 경제 및 대외협력관계

정 기 준*

| <目次> | |
|--------------------------------|----------------------------|
| I. 파키스탄경제의 발전과정 (1947~1983) | III. 파키스탄의 대외경제교류 |
| II. 제 6 차 계획기의 파키스탄 경제 | 1. 제 5 차 계획기까지의 대 외경제상황 |
| 1. 제 6 차 계획의 개발전략 | 2. 제 6 차 계획에서의 대외 경제 |
| 2. 제 6 차 계획의 투자제원 과 성장 | IV.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망 |

I. 파키스탄경제의 발전과정 (1947~1983)

파키스탄이 1947년 독립할 당시 그 경제는 ‘경제적 불모지’라고 불리울 만큼 낙후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제발전은 국민총생산의 증가로 보나 산출의 구성의 변화로 보나 커다란 발전을 이루하였다. 사회서비스와 농촌생활의 근대화의 진척도는 물적생산의 증가에 비해서는 뒤진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이런 향목들은 그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저축률과 투자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경제성장에 걸맞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의 개발노력을 뒷받침해 왔던 외국원조는 GNP의 3%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대신 상업차관이 크게 늘었다. 1970년대에 통제불능상태가 까이까지 갔던 인플레이션은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확실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기초를 둔 자족적 경제성장을 향한 장기간의 노력의 과정 중에는 실수도 있었고, 호기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 파키스탄 국민은 매우 자기비판적이며, 정책의 잘못이 있을 때는 즉각 그 시정을 요구해 왔다. 경제개발의 과정에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개발의 성과는 현재보다 훨씬 나아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기간에 걸친 발전성과는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서울대, 경제학

〈표 1〉 경제성장률의 장기추이

| 부문 \ 계획기 | 제 1 차 (1956~60) | 제 2 차 (1961~65) | 제 3 차 (1966~70) | 무계획 (1971~78) | 제 5 차 (1979~83) |
|----------|--------------------|--------------------|--------------------|------------------|--------------------|
| 농업 | 2.1 | 3.8 | 6.3 | 1.7 | 4.4 |
| 제조업 | 5.2 | 11.7 | 8.1 | 3.5 | 9.0 |
| 기타부문 | 3.6 | 8.3 | 6.6 | 6.2 | 6.0 |
| GDP | 3.1 | 6.8 | 6.7 | 4.2 | 6.0 |
| GNP | 3.0 | 6.8 | 6.8 | 4.9 | 6.3 |

국내경제활동으로부터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즉 GDP는 1950년에서 1983년 사이에 실질개념으로 약 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인당소득은 1983년 가격으로 1800루피에서 4000루피로 배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50년부터 1983년 사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1%이며, 일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인구의 증가때문에 경제성장률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1983년 중반의 인구는 8700만으로 1951년 센서스 때의 인구 3400만에 비하면 2.5배로 된 것이다. 독립당시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늘어난 인구가 2배 높아진 일인당 소득을 누리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장기적 평균적 성장의 뒤에는 고도성장기와 침체기가 뒤섞여있다. 1950년대는 장년의 침체를 깨뜨리는 초기의 어려움을 겪었다. 고도의 산업화와 많은 제도적 진보가 있었으나, 이것은 농업의 홀대를 수반하였다. 아직도 그리하지만, 당시 농업은 국민경제안에서 가장 큰 부문이었다. 농업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인당 식량이 감소하였고, 대규모 식량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기간동안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낫을 수 밖에 없었고, 일인당 소득의 성장은 보잘 것 없었다.

1960년대는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돌이켜보면 이 기간의 투자유인책은 지나치게 의욕적이었고, 어쩌면 낭비적이라고 할만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발전단계로 보면,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경제를 끌어 올려서 경제가 움직이게 하는 데 있었다. 이 새 정책은 그 이전기간에 정비된 기본적 제도의 틀에 힘입어 이 기간동안의 경제개발속도를 놀랍게 가속시켰다. 이처럼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이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순수하게 성장지향적 정책이 사회의 소득 및 재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 3 차 5개년계획은 제 2 차계획의 놀라운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정의의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여러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던 사태의 발발로, 즉 1965년 7월의 대파키스탄원조 콘소시엄의 연기와 1965년 9월의 인도·파키스탄전쟁의 발발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바뀌어 버렸다.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일은 뒤로 밀렸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기존정책에 대한 불만은 가시화하였고, 급진적인 해결책이 등장하였다. 동파키스탄에서 분배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문제는 다른 정치적인 요인들과 함께, 1971년의 방글라데시 분리독립을 가져왔다.

1972년부터 1977년사이의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국유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지 국가재건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관리능력이나 경영능력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제 1 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인상과 겹쳐서 경제의 침체를 가져왔으며,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하였다. 국내경제의 보잘 것 없는 물적 성과를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대규모의 전시적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투자가 석유수출국기구국들로부터의 비교적 단기의 차관의 도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미완성사업과 자원의 지원가망이 없는 투자약속과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말았다.

1978년과 1983년 사이의 안정화정책은 경제의 성장력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투자유형에 어떤 균형을 가져왔다.

1960년대초 이래의 평균경제성장률은 GDP로는 5.7%, GNP로는 6.1%였다. 그 차이는 파키스탄 노동자의 해외로부터의 송금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기간동안에 농업은 연평균 4%의 율로 성장하였고, 대규모 제조업은 7.6%의 율로 성장하였다. 이상의 장기성장 경험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1) 경제성장은 이제 파키스탄 경제에서 하나의 정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성장은 이미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파키스탄의 과제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성장수준을 최적화하는 것이며, 또 분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2) 고도성장기는 농업을 강조한 시기와 일치하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건설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하였다. 건전한 경제정책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는, 경제적·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의 지속적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산물 및 산업활동의 구조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몫은 1948년의 55%로부터 1983년의 29%로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제조업부문의 몫은 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대규모 제조업, 광업, 전설업, 전기·가스업 등으로 구성된 공식산업부문의 비중은 4%에서 22%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은 1940년대 말의 1% 정도에서 1980년대 초에는 13%로 증가하였다. 대규모 제조업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파키스탄 경제는 손쉬운 소비재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화의 제 1 단계에서 보다 기술집약적인 기초공업과 중공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후자에 드는 것으로는 화학제품, 화학비료, 조선, 자동차조립, 생산, 트랙터, 트럭, 철도차량, 전화 및 통신설비 기타 수많은 공업설비 및 부품을 들 수 있다. 파키스탄 최초의 철강공장이 1984년에 완공되었다.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부문들의 빠른 성장에 따른 경제의 다변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농업자체의 성장이 느렸다는 징표가 되지 않는다. 1960년대 이래 농업의 성장률은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것은 과거 20년간에 있어서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이룩할 수 있었던 업적이다. 밀의 부족문제는 해소되었으며 약간의 수출여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여력은 현재 비축량을 늘이는데 이용하고 있다. 쌀을 포함하는 식량 사정을 보면 파키스탄은 현재 상당한 수출국이다.

단위면적 당 농업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밀은 1헥타당 922kg에서 1660kg으로 80% 증가하였으며, 면화는 516kg에서 1042kg으로 배증하였다. 농업의 다각화도 상당히 진전되었는데, 이는 종전에 소홀하게 다루어지던 종류가 추가된다든지 곡물 위주에서 환금작물로 전환된다든지 하는 일도 진행되었다. 보다 현저한 변화는 경작방법과 생산요소투입의 내용이다. 화학비료의 사용과 기계화로 말미암아 오늘의 농촌풍경은 독립 당시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다. 쟁기 대신에 트랙터가 농업의 심볼로 되면서 여러 가지로 농촌의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과 투자의 뚜렷한 증가는 발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경제는 저축률 및 투자율이 5% 이상 10% 미만의 단계

를 지났다. 즉 아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저축률이 약 12.6%, 투자율이 약 15.5%라는 것은 하나의 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의 국제수지는 면화라는 단일 수출상품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이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1949년의 평가절하 거부결정과 면직물산업을 국내의류소비로 전환한 때문이었다. 1950년대 초반에는 한국전쟁으로 외환보유가 증가하여 이를 적자보전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 후반에는 외국원조로써 이 적자를 메꾸었다. 어떤 단계에는 외국원조액이 GNP의 7내지 8%를 점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촉진책에 힘입어 이제는 상당히 활발한 수출부문이 구축되어, 수출액은 GNP의 9% 가량 되며, 총 수출액의 반은 공산품으로 구성된다. 특히 식량과 비료에 있어서의 수입대체에 의해서 1977년 이래 수입의 증가는 수출증가의 약 반의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제2의 석유파동으로 석유수입을 위한 외화지출이 급증하고, 1978~1983년의 기간동안만으로 교역조건이 23%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국제수지적자는 GNP의 약 3.5%인 10억 달러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사회개발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많은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지표들은 그 동안에 커다란 개선이 있었음을 뚜렷이 해주고 있다. 즉,

- (1) 1983년의 일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2664kcal로서, 이는 권장최저 수준의 99%이다. 그러므로 영양실조의 사태는 별로 없다.
- (2) 조사망률은 독립 당시에 비하여 3분의 1로 떨어졌다.
- (3) 출생시의 기대수명은 1950년의 37세에서 55세로 증가하였다.
- (4) 소학교 취학률은 1960년에 비하여 남아는 188%, 여아는 450% 증가하였다.
- (5) 374개의 농촌보건소, 6490개의 기초진료소, 그리고 많은 일차진료소가 세워짐으로써, 농촌인구의 보건혜택이 증대되었다.
- (6) 파키스탄 내의 모든 마을의 3분의 1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었다.

사후적으로 볼 때, 개발과정에서의 큰 실패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구하려는 능력과 결의의 부족이었다. 인구증가가 지속된 것은 사망률을 1.1%로 떨어뜨리는데는 상대적으로 성공하였으나, 출생률은 4%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보잘

것 없는 노력은 계속적인 인구 증가라는 대홍수에 휩쓸려버렸다. 이 인구증가가 생활의 필수적인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인구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임은 사실이나, 개발과정에서 사회적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해서 좀더 많은 배려를 했더라면 사회의 복지수준은 현재보다 향상되었을 것이라 는 일반적인 견해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방대한 농촌지역등 소외된 지역의 주민생활은 매우 불만족스럽다. 이들에 게까지 사회적 안락을 누리도록 사회적 수혜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일은 장래의 개발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 전 인구중 겨우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인구의 비율은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를 시정하려는 시책이 긴급히 추진되지 않으면 이는 장래의 진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다. 영아사망률은 의연히 출생수의 9%를 넘고 있다. 4세 이전에 죽는 어린이의 비율이 1%를 넘는 상황에서 가족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는 어렵다. 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고도의 불건강상태에서 의미있는 보건계획이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식수가 없어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성들이 매일 물을 길어오는 고역을 치루는 많은 사례가 있다. 농촌인구의 절반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농촌의 3분의 2는 전기가 없어서 소규모 가내공장 조차도 지을 수 없다.

제 5 차 5개년 계획은 1983년 6월에 끝났다. 그동안 산만했던 공공부문의 개발사업계획을 통합하고 개발우선순위를 정비하고, 계획원칙을 제도입하는 등 의 일에 있어서 이 제 5 차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 계획의 잠정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목표의 90% 이상이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열악한 대외여건과 교역조건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값진 성과였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부담은 1년에 약 7.5억 달러나 되는데 이는 GNP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 셈이다. 근년의 세계적인 불황과 개발도상국경제의 부진속에서 재정원칙의 정책과 경제경영의 개선에 험입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대견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1) GDP는 연 6% 이상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 대량의 식량부족상태를 상당한 식량잉여상태로 전환하였다.
- (3) 인플레이션율을 5년전의 16%에서 1983년에는 5%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 (4) 그동안 산만했던 공공부문의 개발사업계획을 통합하고 개발우선순위를 정비하였다.
- (5) 개발후진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특히 발루치스탄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중 개발지출을 5배로 증가시켰다.
- (6) 산업성장률을 9%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일부 산업통제와 유인책을 자유화하였다.
- (7) 지난 5년간에 전기화된 마을의 수는 그 이전 30년 간의 수보다 많다.
- (8) 최하위 20% 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장하였다. 이는 자캇 계획의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대규모의 송금유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5 차 계획기간 동안에 성과가 부진한 측면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 GNP에 대한 총투자율은 1978년의 16.4%에서 15.5%로 떨어졌다. 둘째, 물적 하부구조와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장기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화, 물 기타 하부구조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문자해득과 보건설비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 5 차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사회부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계획이 집행되었으며, 예상되는 결과는 소학교는 6배 증가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은 3배, 농촌조산부훈련은 5배, 농촌전기화는 2.5배 증가하며, 농촌도로와 농촌 상수도 역시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특별노력 덕분에 기본적 제도의 틀이 일부 갖추어지고 제 6 차계획에서의 사회부문의 결정적 가속화를 위한 필요추진력이 마련되었다.

II. 제 6 차 계획기의 파키스탄경제

1. 제 6 차 계획의 개발 전략

파키스탄의 제 6 차 계획은 1984년에서 1988년까지(정확하게는 1983년 7월에서 1988년 6월까지)에 걸친 계획으로서, 1947년 독립후 36년간의 국민경제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최근의 파키스탄 경제사정을 아는데 가장 좋은 자료이므로 이 계획의 개발전략 및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제 6 차 계획의 주요 전제는 다음과 같다.

- (1) 강력한 생산기반과 강력한 사회공감대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파키스탄의 장래를 위하여 빠른 경제성장이 긴요하다. 성장이 없이는 빈곤을 재분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 (3) 경제성장은 그것이 빈민에게 도달할 때만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경제생활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 계획은 일반적 농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농의 생산을 배려하며, 전반적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중소산업도 배려하며, 일반적 진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도 배려한다. 본 계획의 표현은 축상적 충계치로서가 아니라 각종 부문, 지역, 사회부문을 위한 구체적 개발계획으로 표현하며, GNP성장을과 저축·투자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표현한다.

계획의 기본틀

계획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즉,

- (1) 본 계획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빈민들이 빈곤상태에서 탈출하는 일을 돋는 것이다. 정책의 기본목표는 빈민들로 하여금 생활의 기본수요, 즉 영양, 주거, 위생, 교육, 건강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균등을 기하게 함에 있다.
- (2) 본 계획이 주로 의지하려는 것은 국민의 창조적 에너지를 계발하는 것이다. 본 계획은 기존 경제통제는 대폭적으로 풀고, 민간과 기관이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에너지를 계발하는데 필요하다면 통제를 가하는 등으로 그 틀이 짜여져 있다.
- (3) 계획된 경제발전으로부터의 주요 수혜자들은 국민 대다수이다. 그리고 이 수혜는 국민소득과 고용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성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가장 가난한 층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이 일반원칙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화하는 실제의 과정을 예시하기로 한다.

경제성장 전략

제 6 차 계획에서는 GDP 성장률을 6.5%로 잡고 있다. 이는 예상되는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이 기간동안에 실질가계소득이 약 20%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계획의 성장전략은 농업생산 특히 소농생산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혁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장전략은 적극적인 소득증대 및 고용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의 과실은 골고루 분배될 것이며, 빈민들의 생활에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제 6 차 계획의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의 결합에 의존하고 있다. 즉,

- (1) 비료, 관개, 농업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농업생산의 획기적인 증대.
- (2) 농축산물(밀, 쌀, 과실, 야채, 꽃, 닭, 고기) 수출시장의 기반 확대.
- (3) 유지 작물의 자급도 증대.
- (4) 철강제품 제조업의 급속한 개발, 섬유산업의 현대화, 잉여농산물 가공업의 확립.
- (5) 서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 특히 인간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그러나 제 6 차 계획은 경제성장에 대한 유리한 효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은 빈곤문제를 직접 공략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수단은 공공서비스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급속히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자원 개발 및 경제생활에 대한 균등한 참여기회를 위하여 불가결한 교육과 보건이 그러하다. 제 6 차 계획은 문자해득수준을 급속히 올리고,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전기의 수혜범위를 넓히고, 보건지표를 개선한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이미 수립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개발사업계획의 몫은 제 5 차 계획의 9.9%에서 제 6 차 계획에서는 14.4%로 증가하였다. 절대액으로는 약 3배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제 6 차 계획의 주요개발수단은 민간부문의 창조적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를 계발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결합될 것이

다. 즉,

- (1)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출을 5배로 늘임으로써 인간자원의 잠재능력을 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교육 및 보건의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다른 투자보다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경험적 증거는 충분히 많다.
- (2) 제 6 차 계획은 기술개발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여 이미 제 5 차 계획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출을 과학기술부문에 할당해 놓았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노력에 기초하여 경제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3) 선별적 행정규제화 같은 경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제거하고 대신 개인의 창의와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몇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실시될 것이다.

새로운 협조

제 6 차 계획의 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새로운 협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업·농업·건설·교육·보건·서비스·상업 기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존과 협조를 고취하는 정책이 실시될 것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과거에 존재했던 비협조를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촉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부문은 민간의 창의력이 실현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하부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투자규모가 방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시장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등의 이유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부문이 있으면, 공공부문은 최후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것이다. 농업·공업을 불문하고, 적십생산활동부문과 서비스부문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맡길 것이다. 도로건설, 공항건설, 에너지개발, 전화서비스확충 및 교육·보건 기타 사회서비스 등의 물적 하부구조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창의력은 공공부문과의 협조 아래 참여가 권장될 것이다. 민간자금을 동원함으로써 정부의 자금부담을 크게 덜고 이 여력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정부고유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제조업에서의 물은 제 5 차 계획에서의 16.6%에서 제 6 차 계획에서는 6.7%로 줄어들었다.

〈표 2〉 산업부문별 투자액과 민간부문의 구성비

단위 : 10억 루피 : %

| 부문 | 1978 | 1983 | 1988 |
|------------|--------|--------|--------|
| 총 투자 | 29.7 | 55.6 | 135.7 |
| (민간부문 구성비) | (29.3) | (35.1) | (43.9) |
| 공업부문 | 8.8 | 9.7 | 23.7 |
| (민간부문 구성비) | (23.9) | (53.6) | (85.2) |
| 농업부문 | 5.0 | 9.1 | 24.5 |
| (민간부문 구성비) | (40.0) | (45.0) | (55.1) |
| 사회간접자본 | 11.7 | 23.5 | 68.5 |
| (민간부문 구성비) | (12.8) | (11.9) | (10.9)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국익을 고려하여 항상 협조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역동성을 배우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사회성을 배워야 한다. 양 부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적이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적이어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의 이동을 투자면에서 보면 〈표 2〉와 같다.

공업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비율은 제 5 차 계획 초기에는 24%에 불과하였으나, 제 6 차 계획 말기에는 8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이 정부에 의해서 마련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여러가지 자유화조치가 취해지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극력 회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

- (1) 자유화조치로 인하여 사회적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소농과 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2) 민간부문은 효율성과 경쟁성을 추구할 것이며, 특혜와 보호속에 안주할 수 없을 것이다.
- (3) 정부부문은 규제가 아니라 격려로써 민간부문을 도울 것이다.

2. 제 6 차 계획의 투자재원과 성장

파키스탄은 제 5 차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6%의 경제성장과 9%의 수출성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아프간 난민들이 다수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룩한 성과라는 데서 값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낮은 투자수준, 악화되는 사회간접자본사정, 사회서비스

의 악화 등을 수반하는 성장이었다. 이 기간 중에 GNP에 대한 고정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에너지부문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속도에 따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성장도 증가하는 인구를 따르지 못하였다. 제 6 차 계획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인구증가율이 3%에 이르는 경제로서 GDP성장을 6내지 7%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률이다. 이 정도의 성장률은 필요한 저축증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준이다.

생산성과 고용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고용이 3.5% 정도로 늘어날 때 생산성은 3%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 이 정도의 생산성증가가 있어야만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의미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성장

제 6 차 계획의 전략은 최근의 성장잠재력에 새로운 성장원을 가미해서 중기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형의 도모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기초를 구축한다는 데 두어진다.

연평균 GDP성장을 6.5%로 잡고 있는 제 6 차 계획은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물생산부문인 농업과 공업은 다른 부문보다 높은 성장률이 계획되고 있다.

〈표 3〉은 부문간의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다.

〈표 3〉 부문별 성장률

| 부문 | 제 5 차 계획 | 제 6 차 계획 |
|--------------|--------------|---------------|
| 농업 (주곡) | 4.4 (4.8) | 4.9 (3.6) |
| (잡곡) | (3.1) | (7.0) |
| (기타) | (4.3) | (6.0) |
| 제조업 (대공업) | 9.0 (9.7) | 9.3 (10.0) |
| 기타부문 | 6.0 | 6.4 |
| GDP(요소가격 기준) | 6.0 | 6.5 |
| GNP(요소가격 기준) | 6.3 | 6.3 |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4.9%로서 제5차 계획에서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성장의 특징은 그 성장률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의 변화에 있다. 주곡생산의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고, 잡곡 및 기타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 석용유, 낙농제품의 증가율을 높인 것은 수입대체를 위한 것이고, 과일·야채·닭고기·달걀·가축을 늘인 것은 수출의 증가를 위한 것이다.

제조업 성장률 9.3%는 대공업성장을 10.0%와 소공업 성장을 7.3%의 가중평균이다. 대공업 중에서도 중간재 및 자본제의 성장률은 13.4%로 잡고 있다. 소비재공업의 성장률은 7.2%로 잡혀 있으나 소비재 중에서도 수입대체품과 수출품 생산의 경우는 성장률을 높게 책정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진보를 크게 강조하고, 품질개선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기타 부문의 성장률 6.4%는 GDP성장을 6.5%와 거의 같다. 기타 부문에는 광업, 전기가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성장률 7.5%로 예정되어 있는 광업의 구성은 가스 52%, 원유 22%, 석탄 13%로 되어 있다. 이 산업들은 제6차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산업들이다. 전기산업의 성장률은 9%로 되어 있다. 서비스부문의 성장률은 6.1%로 되어 있다. 이처럼 낮은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고정된 주택소유의 낮은 성장을 때문인데, 이를 제외시키면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6.8%로 된다.

GNP의 성장률은 GDP의 성장률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의 주원인 노동자들의 송금의 증가율이 4.3%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소 비

총소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5.4%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총생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이는 저축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소비의 증가율은 7.5%로 총생산의 증가율보다도 높은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유지비의 증가 때문이다. 과거 이 유지비는 충분하지 못하여 유지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출의 증가도 계획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공공소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민간소비 특히 가난한 사회계층을

위한 민간소비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5.1%인데 이는 일인당 2.3%의 소비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소비증가는 재분배효과를 수반함으로써 가난한 지역과 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될 것이다.

투자와 저축

파키스탄의 국내총투자는 제 5 차 계획기간중에 15% 수준이었고 저축률은 12% 수준이었다. 그리고 민간투자율은 그중 5% 정도의 수준이었다. 제 6 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는 저축과 투자를 크게 개선하고 민간투자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축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저축과 투자의 상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제 6 차 계획기간중의 평균 총투자율은 17.8%로 계획되어 있고, 최종년도에는 19.2%로 계획되어 있다. 고정투자는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3년의 13.4%에서 1988년에는 17.4%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투자중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의 35%에서 1988년에는 46%로 예정되고 있다. 당연한 귀결로서, 제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주로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되며, 공공투자는 계속 사업과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사업에 국한될 것이다.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공공투자의 GNP에 대한 비율은 1983년의 8.5%에서 1988년에는 9.4%로 늘어난다. 공공투자의 변화는 총액에서가 아니라 투자의 기능에 있어서이다. 공공투자는 사회의 하부구조의 건설과 후진지역개발의 촉진에 집중될 것이다. 공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회서비스, 교통망,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마련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저축노력이 필요하다. 저축률은 1983년의 12.6%에서 1988년에는 16.6%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한계저

〈표 4〉 저축과 투자율

| | 1983 | 1988 |
|---------|------|------|
| 총 투 자 율 | 15.5 | 19.2 |
| 국민저축률 | 12.6 | 16.6 |
| 해외저축률 | 2.9 | 2.6 |

〈표 5〉 부문별 투자배분

| 부 문 | 제 5 차 계획 | 제 6 차 계획 |
|---------------|----------|----------|
| 농업 및 관개 | 15.9 | 17.8 |
| 에너지 | 17.2 | 23.1 |
| 교통 및 통신 | 19.6 | 16.5 |
| 산업 | 20.2 | 16.3 |
| 광업 | 0.3 | 1.4 |
| 사회부문(교육 보건 등) | 7.6 | 9.5 |
| 기타 | 19.2 | 15.4 |
| 총 계 | 100.0 | 100.0 |

축률이 20%임을 의미한다.

민간저축률은 1983년의 11.0%에서 1988년에는 13.1%로 높일 예정이다. 이중에서 특히 법인저축은 0.2%에서 0.8%로 올리고, 가계저축은 해외로부터의 송금을 저축으로 유도함으로써 10.8%를 12.3%로 올릴 예정이다.

공공저축은 GNP의 2.4%에서 3.5% 올림으로써 공공투자를 위한 공공저축조달률을 18%에서 3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외 자

제 6 차 계획기간중의 외자도입의 총액은 100억 달러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 이중 73억 달러는 원조이며 나머지는 상업차관과 직접투자 등이다. 외자도입 총액의 82%는 특정공공부문투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60% 이상이 에너지개발, 광업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특정되어 있다.

제 6 차 계획에서는 해외저축의 비중을 낮추도록 계획하고 있다. 즉 GNP에 대한 해외저축의 비율은 제 5 차 계획의 3.5%에서 제 6 차 계획에서는 2.7%로 낮추려 하고 있으며 이는 총투자 중 해외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III. 파키스탄의 대외경제교류

1. 제 5 차 계획기까지의 대외경제상황

파키스탄의 국제수지 사정은 GDP의 성장률이 6% 이상으로 지속되고 수출탄력성이 1.5로서 상당히 높고, 수입대체정책이 강력히 실시됨으로써 크

게 호전되어 왔다. 그리고 노동자의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적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해외로부터의 원조가 격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상태는 개선되었다.

1970년 중반 이래로 경제 및 무역실적이 개선된 것은 의적여건이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달성한 개선이라는 데서 더욱 값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리한 상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 (1) 세계경제환경은 저성장과 1980년의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1982년에는 세계무역량이 2%나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2) 일차산품의 가격하락으로, 파키스탄의 대외 교역조건은 제5차 계획 기간 중에 30%나 악화되었다. 이는 GDP의 2%의 손실에 해당한다.
- (3) 파키스탄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원조는 격감하였다. 1975년부터 1982년 사이의 실질감소율은 연율로 34%에 달하였다.
- (4) 유례없는 이자율의 상승으로 1979년 이후에는 8%에 달하였고, 이와 함께 환율도 불안정하여 경제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 (5)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래 지정학적 상황이 극적인 변화를 보였고, 이로 말미암아 파키스탄의 상황에는 어려움이 더해졌다.

수 출

제5차 계획기간의 파키스탄의 대외지불능력은 눈부신 개선을 보였다. 특히 1980년 전후의 수년간 수출은 강력하게 추진되고 다양화하였는데 이는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또 수출촉진책에 의한 경쟁력의 제고에도 기인한다. 수출은 금액으로는 연 30%, 물량으로는 14%의 율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5차 계획에서의 목표 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면제품, 가죽제품, 의류 등 비전통적 품목의 수출증가는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량은 1978년의 29%에서 1981년에는 4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2년에 들어와서는 세계경제환경의 악화와 함께 파키스탄의 수출실적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수출액은 17%가 하락하였고, 특히 카펫, 쌀, 면사의 수출이 격감하였다. 또 이자율의 상승으로 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수출가격도 순환변동의 기록적 최저치를 보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역조건도 악화하였다. 1979년에서 1983년 사이에 파키스탄의 상품교역

조건은 30%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파키스탄정부는 수출감소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즉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률을 당시 강제통화였던 달리와의 연동으로부터 단절하였다. 또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보조와 효율성 제고등 생산기반 강화를 통하여 공급측면의 정책을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1983년에는 금액으로는 10%, 수량으로는 12%가량 수출이 증가할 수 있었다.

수 입

제 5 차 계획의 초기에 수입액은 급증을 보였는데, 이는 원유가격상승과, 밀과 비료의 국내생산 감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후 수입대체정책과 수요 관리의 성공으로 수입증가는 다소간 진정되었다. 그리하여 제 5 차 계획 전 기간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3%로서 이는 계획치 6.7% 보다 낮은 증가율이다.

해외로부터의 노동자 송금

해외로부터의 노동자의 송금은 제 5 차 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하였다. 즉, 송금액은 1978년의 11억 달러에서 1983년에는 30억 달러로서 연 20% 가까운 높은 율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파키스탄의 무역의 수지의 흑자는 연평균 24%의 율로 증가하였다.

경상계정

수출의 증가, 송금유입의 증가, 수입의 억제 등으로 경상수지적자는 꾸준히 감소하여, 1979년에는 GNP의 5.3%였으나, 1983년에는 1.4%로 감소하였다. 금액으로 볼 때, 제 5 차 계획기간중의 연평균 경상수지적자액은 7억 달러인데 이는 계획에서의 예상액은 10억 달러였다. 적자액의 외환수입액에 대한 비율은, 1978년에는 21%였는데 1983년에는 6.6%로 줄었다.

자본계정

제 5 차 계획기간중의 파키스탄의 자본계정의 변화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공공원조의 격감, IMF와의 계약에 의한 상당한 자금유

입,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실질 순이전의 격감이었다. 이는 1976년 불변가격으로 1975년에서 1982년 사이에 6.64억 달러에서 0.3억 달러로 줄었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순이전액은 국내총투자액의 33%에서 1%로 줄었다. 따라서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현저한 개선이 없었더라면, 파키스탄 경제는 축소지향적, 내향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순이전의 감소추세는 1983년부터 역전되어 그 이후에는 개선될 전망이 보였다.

요 약

요컨대, 약간의 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제5차 계획기간중에 파키스탄의 국제수지사정은 점차로 호전되었다. 수출은 증가추세를 뚜렷이 보였고, 이는 국제환경의 불리성을 감안할 때 대단히 값진 성과라고 할만 하다.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수요억제 정책으로 수입증가율은 매우 낮아졌다. 노동자의 송금수입은 계획에서 예상했던 것의 두 배나 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은 순이전의 격감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환보유액도 4.5개월분의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로 증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파키스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국제수지상황에서 제6차 계획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2. 제6차 계획에서의 대외경제

대외경제전략

제6차 계획의 국제수지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 (1)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전략과 효율성제고를 통한 농업, 공업,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
- (2) 세계경제의 약간의 상승추세로의 전환과 교역조건의 안정.
- (3) 파키스탄의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가미된 변동환율제도의 운영

- (4)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적 유인책을 구축하기 위한 유인구조의 전면적 개편.
- (5) 수입원자재와 도입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게 하고, 국제경쟁압력에 노출됨으로써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자유화의 단계적 추진.
- (6) 민간투자와 해외로 부터의 투자가 주요 수출산업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애로의 획기적 제거.
- (7)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품목의 선별과 지원.
- (8) 에너지수요 억제와 국내에너지 개발의 지원.

1982년은 국제수지사정이 극도로 나빠서 경상적자가 16억 달러에 달하였고, 1983년은 반대로 극히 호전되어서 적자가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변동이 심하였기 때문에, 제 6 차 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국제수지의 기준은 이양년도의 가중평균을 쓰고 있다.

수출전망

1982년까지의 세계경제는 침체를 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1983년부터는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으며, 그리하여 제 6 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파키스탄의 교역상대국의 성장률은 3~4%로 전망되며, 이로 미루어보아 파키스탄의 수출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파키스탄의 교역조건은 약간의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 6 차 계획기간의 초기에는 약간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이나, 후기에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6 차 계획 기간중에 파키스탄의 상품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8.5%의 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준년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부가가치상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수출품구성의 변화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출예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의 생산과 생산성의 지속적인 개선, 동일한 원료로부터 더 많은 의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구조

적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구조의 구축, 제품의 기능성, 품질, 시의성, 디자인, 신뢰성 등의 비가격경쟁의 측면의 개선을 통한 고가격수출의 실현, 닦고기, 가죽, 과일, 야채, 기타 식료품 등 새로운 수출상품을 중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는 노력, 적극적인 시장개척노력을 통한 해외시장정보의 확충.

파키스탄의 수출품 중에서 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쌀은 세계의 생산량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주요 쌀 수출국의 풍흉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세계 쌀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유지할 정도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물량으로는 연평균 3% 금액으로는 9%의 증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쌀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산 쌀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중동지방에서 인기가 있는 품종(Basmati)을 선택하여 다른 품종의 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품종의 쌀의 수출은 그리 안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적절한 비축정책을 써서, 세계적 쌀부족이 있을 때 좋은 값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원면에 대한 국내생산은 연 4.7% 증가하고, 소비는 3% 가량 증가한다고 전망할 때, 수출은 2% 증가한다. 이는 가격상승전망에 비추어 볼 때 금액으로는 연평균 8.5%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세계원면시장에서의 상대적인 몫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원면의 수출전망은 면직물의 수출과 관련이 된다. 파키스탄은 면직물의 수출물량의 증가와 질의 고급화를 통하여 제 6 차 계획기간 동안에 면직물의 수출액을 두 배로 올리려 하고 있다.

면사의 수출은 물량으로는 연 3%, 금액으로는 연 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인데, 이는 한국과 브라질의 경쟁력이 강화됨을 감안한 것이다.

직물가공품의 수출증가는 매우 빠르다. 특히 의류수출은 1977~82년 기간 동안에 2.5배로 증가하였다. 제 6 차 계획기간 동안에 직물가공품과 의류의 수출은 각각 연 22%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가지 제품의 구성변화를 감안할 때, 섬유제품의 수출액은 연 16%의

율로 증가할 것이며, 총 섬유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전통적 섬유제품의 비중은 1977년의 23%에서 1988년에는 6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강한 성장을 보여온 카펫수출은 수요국의 불황과 인도로부터의 경쟁 때문에 격감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의 고급화를 통하여 제6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8%의 수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가죽 및 가죽제품은 파키스탄의 전통적 수출품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근의 수출동향은 공급의 차질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나, 설비의 증설과 품질의 개선으로 제6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12%의 수출액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수산물은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중동에 대한 수출이 활발하며, 제6차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 14%의 수출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식량부족상태를 식량잉여상태로 바꾸는데 성공한 파키스탄은 활발한 농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6차 계획의 최종년도에는 20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원면과 쌀의 수출 뿐 아니라, 밀, 설탕, 닭고기, 육류, 과일, 야채 등의 수출만도 제6차 계획의 최종년도에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출은 선진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며, 세계적인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연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식료품 수출의 잠재력에 눈을 돌려 외국과의 합작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즉 이미 미국과의 합작투자 계획에 의한 각종 농축산물 가공공장이 설립되고 있다.

정부측에서도 농산물가공업의 유망성에 착안하여 이미 카라치에 '농산물 수출가공지역'을 설치하여 합작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과 경영기술의 전수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제6차 계획에서는 새로운 식료가공품의 수출이 계획기간 중에 1억 달러 수준에서 5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의 수출유망부문은 운동용품과 철강과 경공업제품이다. 수출증가율의

전망은 운동용품이 연평균 10%, 철강제품이 25%, 경공업품이 18%인데, 철강제품의 수출은 기준연도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크지 않으며,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총수출액의 10% 수준이다.

이상의 전망을 종합하면, 1983년의 수출액 25억 달러를 1988년에 50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연평균증가율을 15%로 전망하는 것이다.

수 입

제 6 차 계획기간중에 수입은 물량으로 연 5.5%, 금액으로 1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 5 차 계획기간중의 증가율보다는 높은 것인데, 이러한 전망을 넓게 한 배경을 보면, GDP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잡고 있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며, 의욕적으로 에너지부문을 개발하는 동시에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부문에서의 수입대체를 달성한다는 등의 것을 들 수 있다.

밀과 설탕과 시멘트의 수입이 필요없게 됨과 동시에 식용유, 우유, 기타 낙농제품, 강철, 수송용 설비, 공산품 등의 수입을 절제한다. 예컨대 식용유의 수입은 근년에 급격히 그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의 확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다. 즉 유지작물 생산을 연평균 7.3%의 증가율로 늘려, 식용유의 국내생산 비중을 계획기간 중에 40%의 수준으로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다.

소득의 증가와 함께 낙농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근년의 낙농수입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국내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연평균 6%의 생산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수입대체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전망이다.

종합제철공장의 준공과 완전가동은 파키스탄의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된다. 이로써 많은 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각종 중화학공업에 있어서의 수입대체가 촉진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은 요소비료의 자급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것은 주로 복합비료이다. 제 6 차 계획기간중의 비료수입은 연평균 13%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물량증가 6.2%와 단가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장기적으로는 원유의 국내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당분간은

화력 발전의 연료로 쓰이는 기름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계획기간중에 원유도입액은 연평균 9%의 상승으로 1988년에는 2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자본재의 수입은 민간투자의 활발화로 연 11%의 율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수입총액은 연평균 12%가 증가하여 1988년도의 수입총액은 1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상의 전망은 부문별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수입대체와 수입자유화의 진전속도에 따라 상당한 괴리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할 때, 위의 전망은 그리 크게 빗나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용역거래

용역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파키스탄은 제 5 차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24%의 용역거래흑자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는 주로 노동자의 송금증가에 기인한다. 제 6 차 계획에서는 그 증가율을 연평균 9%로 잡고 있다.

노동자의 송금액은 1970년대 중반에는 수출액의 15% 정도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3년에는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로 됨으로써 원조액의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 6 차 계획기간 중에는 세계적 원유가 약세를 반영하여 과거와 같은 송금액 증가는 기대할 수 없으나, 송출인력의 기능수준 향상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10% 정도의 송금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수지의 경상계정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감안하여 국제수지의 경상계정의 전망을 보이면

〈표 6〉 경 상 계 정 (단위 : 100만달러)

| | 1983 | 1988 | 연평균증가율 |
|------------|--------|--------|--------|
| 수 출 | 2,504 | 5,036 | 15.0% |
| 수 입 | -5,627 | -9,917 | 12.0 |
| 노동자 송금 | 2,621 | 4,221 | 10.0 |
| 경상수지 | -904 | -1,428 | 9.6 |
| 경상적자/G N P | 2.9% | 2.6% | |

〈표 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경상국제수지 적자는 1983년의 9억 달러에서 1988년에는 14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GNP에 대한 비율로 보면 2.9%에서 2.6%로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수지의 자본계정

파키스탄의 원조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MF로부터 미리 인출한 금액의 상환을 고려하면 자본계정의 흑자는 경상계정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도 부족한 형편이다. 〈표 7〉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원조도 파키스탄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는 중요한 항목은 장기원조수입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원조수입이 이렇게 예상대로라 할지라도 총개발지출에서 차지하는 원조수입의 비중은 1988년에 10.8%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원조자금을 포함한 정부가용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두고 있다.

원조 이외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의 창의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책의 공표와 실제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제 6 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1.5억 달러의 투자유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 이 투자는 주로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원조와 직접투자 이외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상업차관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유공장건설 등이 포함된다.

상업차관과 원조자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표 7〉 자 본 계 정

(단위 : 100만달러)

| | 1983 | 1988 | 연평균증가율 |
|-------|-------|-------|--------|
| 총원조수입 | 1,020 | 1,728 | 11.1% |
| 상 각 액 | -448 | -646 | 7.6 |
| 순원조수입 | 572 | 1,082 | 13.6 |

않았다. 그러나 외환사정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제적 신용이 높아져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6 차 계획 전제에 걸쳐서 국제수지를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려진 전망이다. 즉,

- (1) 수출증가율 8.5%는 과거평균 14%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소평가 했다고 볼 수 있다.
- (2) 노동자의 송금액 증가율 10% 역시 매우 비관적인 전망하에서 나온 수치이다.
- (3) 수입액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유수입액은 전망치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료수입 역시 전망치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기타 공산품의 경우도 수입대체산업의 활발한 전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 (4) 파키스탄의 교역조건은 계속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추세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망에서는 이 점을 중립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상황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실제로 유리하게 전개되면 계획은 언제라도 확대 수정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유리한 사태진정이 없다 할지라도 파키스탄의 국제수지문제는 그리 우려할 만한 것은 못된다.

IV.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망

파키스탄의 최근 경제동향

파키스탄 경제는 일인당 소득이 400달러에도 미달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다. 그리고 1955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의 덕택에 착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 공통점이라고는 단지 이슬람교 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종족이 인도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종족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이다.

현지에서 본 파키스탄 경제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를 연상시키는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만나 본 교수, 연구자, 관리들은 모두 자국경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개발계획을 한국에 앞서서 수립·실시했다는 것도 한국인을 향한 자부심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부

〈표 8〉 주요경제지표

| | 1985 | 1986 | 1987 | 1988 |
|-------------------|-------|-------|-------|-------|
| 대미환율(루피/달러) | 15.98 | 17.25 | 17.45 | 18.65 |
| 인구(100만인) | 96 | 99 | 102 | 105 |
| 국민소득(10억루피) G D P | 482 | 547 | 608 | 686 |
| G N P | 520 | 588 | 645 | 717 |
| 무역(10억루피) 수 출 | 50 | 63 | 79 | 87 |
| 수 입 | 107 | 103 | 123 | 139 |
| 국제수지적자(100만달러) | 1,080 | 645 | 554 | — |
| 상품수출(100만달러) | 2,648 | 3,191 | 3,938 | — |
| 상품수입(100만달러) | 5,878 | 5,971 | 6,247 | — |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89년 8월호.

심의 최대원천은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최대의 라이벌인 인도보다 경제 성과가 우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최근 파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는 〈표 8〉과 같다.

1988년에 끝나는 제 6 차 계획의 성과에 대한 통계는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나온 거시경제지표에 의하면 계획을 약간 하회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노동력의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송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후반의 중동진출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파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 같다. 이 표에서 보는 GNP와 GDP의 차이는 대부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무역수지가 크게 보전되어 경상국제수지 적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국제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외환부족의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달러의 공정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를 없애는 기능도 하고 있어, 저소득국으로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외환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북부국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과 그 밀무역 때문이라고 하는 설도 있기는 하다).

노동자의 해외진출은 그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파키스탄경제의 전망과 한국경제

파키스탄 경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리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제가 아니다. 제 6 차 계획에서 언급된 대로 파키스탄 경제는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가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그 진도는 매우 느려서, 현재나 십년전이나 십년후나 그 변화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경제에 대한 중단기전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파키스탄 경제의 모습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도 별로 잘못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를 보면, 1968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1983년에 공관이 설치된 이래, 1984년에 해운협정, 1985년에 경제, 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사증면제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양국간의 무역은 왕복 연 2억 달러 정도로 그리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과 파키스탄간의 경제교류를 전망한다면, 급속히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요인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파키스탄의 낮은 임금수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